

구간 경계 조정·공항·KTX 해결책 모색

광주·전남 의원들 모처럼 머리 맞댄다

설 전후 회동...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온힘

지역 현안에 무관심하다는 논총을 받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오랜만에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논란을 빚고 있는 지역 현안에 대해 가능하면 일괄타결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박주선, 조영택, 김동철, 이용삼, 김재균, 강기정 의원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다음 주에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갖기로 했다.

광주 국회의원들은 지역 현안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남 국회의원들과의 공조가 절실하다는 점에서 구정 전후에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의 전체 회동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이 자리에 강운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도 초청,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현안 문제를 함께 풀어갈 것이라는 계획이다.

우선,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유치와 관련, 일단 호남권 유치를 원칙으로 추진하되 전북이 독자 유치를 고집할 경우, 분산 유치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조만간 R & D 특구가 들어서는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과 충청권(대덕 R&D)에 국제 과학비즈니스 벨트를 분산 유치하려는 '삼각 과학비즈니스 벨트론'을 내세운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국제 과학비즈니스 벨트의 충청권 유치를 결정한 만큼 우회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한, 여권에서도 호남과 영남, 충청권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영택 의원은 "국제 과학비즈니스 벨트 사업 유치를 위해서는 광주·전남이 함께 나서야 한다"며 "특히, '삼각 과학비즈니스 벨트론'은 보다 현실적이고 전략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주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이재오 특임장관을 만나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유치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이날 이 장관이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가 특정 지역에 가기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며 "광주에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요청에 이 장관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또한,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다음 주 회동을 통해 광주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의견을 취합하는 한편 구간 경계조정 문제 등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일부 광주 국회의원들은 "KTX가 들어서는 2014년까지 광주공항을 존치한 뒤 무안공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이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오 특임장관에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광주 유치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떠한 해결책이 제시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구간 경계조정 문제, KTX의 나누어 경우 여부, 광주공항 이전

문제 등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점에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청문회 표적 최중경·정병국 전환

'일일 1건' 제기... 재산형성·땅투기 의혹 주장

민주당은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낙마에 따라 13일 최중경 지식경제부,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로 청문회 표적을 전환, 본격적인 공격에 나섰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포격’은 청문회 당일 하더라도 매일 한 건씩 문제를 제기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는 가랑비 작전으로 가야 한다"며 "국민여론이 '저 사람 안 되겠다'고 해도 당일에 포격을 가해야 낙마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서갑원 의원은 이날 정

내정자가 자신의 소유인 경기도 양평군 소재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면서 15배 가량의 보상액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정 내정자 소유의 양평군 임야 중 10분의 1에 해당하는 800㎡가 도로에 편입됐다"면서 "보상금은 7234만원으로 정 내정자가 신고한 재산가액(8431㎡, 4966만원)보다 15배에 가까운 과다 보상을 받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은 "이 보상이 현실적 수준이었다면 후보자의 해당 토지에 대한 실제 가액은 7억5000여만원을 상회한다"며 "이에 대한 소

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영민 의원은 최 내정자 부인의 땅투기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최 내정자의 부인이 1988년 9월 언니와 함께 충북 청원군의 임야 1만6562㎡를 4900만원에 매입한 지 3개월 만에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돼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 1992년 최소 2억87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아 4년 만에 6배의 수익을 챙겼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또 두 사람에게 화력을 집중하기 위해 오는 27일로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당분간 공격 자체를 하지 않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黨-靑 '같은 화해 속은 냉랭'

26일 대통령 만찬 미뤄질 가능성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자진 사퇴'이후 한나라당 지도부를 바라보는 청와대의 눈길에 한기가 돌고 있다. 겉으로는 정국 타개를 위해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있지만 안으로는 배신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 오는 26일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와의 만찬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공식적으로는 이 대통령의 일정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정황은 대통령

의 인사권에 반기를 든 한나라당 지도부에 대한 청와대의 불편한 심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홍상표 홍보수석 등은 이 대통령의 일정이 유동적이어서 미정 상태라고 설명했지만 정황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만찬을 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로 청와대 내부에서는 여당 지도부가 사전조율도 없이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 사

태를 크게 악화시켰다는 인식이다.

이는 대통령 임기가 2년이나 남았음에도 '레이덕(집권후반 권력누수 현상)'이란 말까지 오르내리게 만들어 대통령을 뒤흔드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평소 이 대통령이 "내게 레이덕이란 없다", "서울시장 때처럼 퇴임 일까지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당-청 관계가 이전처럼 복원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한나라당 지도부의 반란으로 볼 수 있어 상당기간 당청 간에 한랭전선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야권연대 논의 본격화

'안상수 대표 차남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

특위 정례회·소위 구성키로

민주당이 야권 연대논의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범국민 연대 및 야권연대를 위한 특위'(위원장 이인영 최고위원) 첫 회의를 열어 야권 연대를 위한 당내 논의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우선 특위 회의를 격주로 정례화하기로 하고 필요에 따라 소위 회의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특히 이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다른 야당

정책연구소와 함께 연합 정책 및 최소 강령을 만들기 위한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4대강 사업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등을 놓고 연대활동을 벌였던 'MB·한나라당 심판 제정당·시민단체 연석회의'를 '국민운동기구'로 재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나아가 4·27 재보선 야권연대의 원칙과 구체적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당내에 구성된 4·27재보선기획단 및 지도부와 협의, 결정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이석현 의원과 박지원 원내대표가 13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차남의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했지만 안 대표와 서울대가 곧바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서울대 법대 후배들로부터 제보가 왔는데 지난해 12월 서울대는 150명의 로스쿨 합격생을 선발했고 이후 2명이 추가합격했는데 그중 한 명이 안상수 대표의 아들"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추가 합격한 학생의 후보자(예비합격) 순번이 1번과 7번인데 바로 7번이 안 대표의 아들이라는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무상 시리즈' 속도조절

'무상보육' 재원마련 이견 당론 유보... 한 "복지위장 표창사"

민주당이 무상급식·무상의료에 이어 무상보육 카드까지 꺼내드는 등 무상복지 드라이브를 계속했다.

하지만, 재원 마련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당내 일부의 지적에 따라 속도조절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정책 위원총회를 열어 무상급식과 무상의료에 이어 무상보육을 당 차원에서 추진키

로 했으나 재원마련 방안 등에 대한 내부 이견으로 구체안에 대한 당론 채택은 유보했다. 재원 문제 등 미비점에 대해 수정과 보완을 거쳐 추후 다시 논의키로 한 것이다.

정책위가 이날 보고한 무상보육안은 5년간 단계적으로 0~만5세 이하 모든 아동에 대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

원 기준을 정부 지원단가 기준에서 보육비용 기준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소득 하위계층 70%에서 아동 전체로 늘렸다.

이날 정책위는 '대학생 반값 등록금' 정책도 보고했다. ▲기초생활수급자~소득 1분위(연소득 1238만원까지) 등록금 전액 장학금 지원 ▲소득 2~4분위(연소득 3270만원까지)

등록금 반액 장학금 지원 ▲소득 5분위(연소득 3816만원까지) 등록금 30% 장학금 지원 등 소득계층별로 3단계로 나눠 등록금을 차등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강력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안상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무상시리즈는 복지를 위장한 표창사이고, 표면 얻고 보자는 선거 슬로건"이라며 "민주당의 주장은 서민의 엄청난 세금 부담을 교묘하게 숨긴 채 복지로 포장한 무책임한 위장 복지"라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온가족을 위해 건강한 제품을 약속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온 가족이 믿을 수 있는 건강한 제품을 약속합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국가대표 건강기능식품 전문 기업,
비타민하우스와 함께 하세요.

비타민은 비타민하우스 www.vitaminhouse.net / 대표전화 1588-8529

LG전자 시스템 에어컨(주) 특판부

난방비 절감, 등유대비 70%이상 놀라운 절약률!!

LG 히센시스템이 설치 및 애프터 서비스
유지관리까지 완벽하게 책임지겠습니다

■ 설치장소

- 공장시설
- 업무시설
- 교육시설
- 숙박시설
- 의문시설
- 판매시설

■ 장점

- 절전형 고효율 인버터 콤프레서
- 친환경 냉매
- 하이드로 키트체택

비대 난방, 급탕이 필요한 병원, 기숙사, 리조트 등 다양한 건물에 모두 적용가능합니다.

LG전자 시스템 에어컨(주) 특판부 진영실비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528-10번지
TEL. 062-953-2371 · 061-727-2371 · 019-624-2371